

땅 끝에서 다가온 이웃을 향해

CMCA(Canada Mosaic Christian Alliance) 사역을 통해 다민족 선교의 장을 연다

“열방 선교의 황금어장 다민족 캐나다”



팀호른에서 느끼는 다민족 사회

이민의 삶을 사는 한인들이 습관적으로 자주 들르는 팀호른 커피숍에서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귀 기울여 보면 이곳이 전세계 인종이 모인 곳이라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다. 테이블마다 앉은 손님들의 모습과 피부 색깔도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언어가 모두 달라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인지 분간조차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포르투갈 말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페르시아 말인 경우에서 나타나듯이 가히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복합문화사회를 실감할 수 있다.

모자이크 선교의 시대

이민의 나라 캐나다 정부는 이곳에 들어와 사는 소수민족을 ‘Visible Minority(유색 소수민족)’라고 공식적으로 부르고 있다. 하지만 한인들 포함해 200여 이상의 소수민족은 이제는 더이상 소수민족에 머무르지 않고 캐나다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는 추세다. 이렇게 다양한 다민족 공동체(multi-ethnic communities)가 믿는 종교 또한 다양하게 공존하는 당연한 이치이다.

캐나다 무슬림 인구는 2001년 58만 명에서 2011년 105만 명(2011년 캐나다 인구센서스)으로 대폭 증가했다. 10년 사이에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해 벌써부터 기독교적 가치관이 소외되는 현상을 곳곳에서 보게 된다. 해외 이슬람권 국가로 수많은 선교사와 단기선교팀이 나가지만 복음화 비율은 여전히 미미한 가운데, 오히려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북미마저 이슬람 세력의 지배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이슬람과 불교, 힌두교 등과 비종교적 가치관이 기존 기독교 가치관을 위협하며 세를 넓혀가고 있는 이때에 기독교 복음을 어떻게 지키고 전하는가는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당면과제로 대두했다.

CMCA(캐나다 다민족 선교연합)

CMCA(Canada Mosaic Christian Alliance, 대표 정현범)는 캐나다 내의 다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을 하기 위해 비영리 선교단체로 등록 설립되었다. 정 목사는 토론토 영락교회 부목사 시절 동남아시아 소수민족인 베트남, 미얀마, 태국, 라오스 교회를 영락교회 안에 개척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9년동안 감당한 바 있다. 이제 그는 지경을 넓혀 캐나다 전역의 소수민족이 교회를 개척하고 자국 언어로 예배드리며 궁극적으로는 본국에까지 복음을 전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CMCA의 ‘모자이크 선교(Mosaic Cultural Ministry)’ 존재 이유로 내걸었다.

CMCA 비전은 복음을 다민족에게(To Diaspora), 다민족을 통하여(Through Diaspora), 다민족을 넘어서(Beyond Diaspora) 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캐나다 내에서 소수민족들이 그들의 언어, 문화 안에서 교



▲ CMCA 창립 예배 모습

회를 개척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지원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돕고, 궁극적으로는 세워진 소수민족 교회들이 캐나다 내 자기 종족뿐만 아니라 모국 동포들과 국내의 다른 종족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MCA는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며, 서로 네트워킹하면서, 모두 함께 동역자가 되어, 그들 교회가 자립할 때까지 구체적으로 돕는 선교를 6가지 핵심 전략으로 내세운다. 마치 어린 새싹을 모판에서 양생해 종내에는 비바람에도 튼튼하게 자라는 나무로 키워내듯이, 우리가 사는 캐나다에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신념과 종교적 가치관을 가진 다민족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영적, 정신적,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그들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성장해 복음 전파의 역군으로 만드는 밑그림을 그려본다.

기존의 선교가 멀리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방식이었다면, 그 반대인 땅끝에서 다가온 이웃에 대한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CMCA를 들어 사용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한인 교회뿐만 아니라 비한인 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성도들이 네트워킹을 통해 힘을 합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에서 다가온 이웃에게 전하고 그들이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원하고 계실 것이다.

우리 밖의 99마리 양

예수님은 안전한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을 두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셨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



랑은 혼탁한 지금 세상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다. 오늘날은 왜곡된 성문화와 인본주의에 바탕을 둔 물질만능주의와 세속화가 만연한 가운데, 우리 안에는 한 마리의 양이 있는 반면에 우리 밖에 길 잃은 99마리 양이 세상 맹수의 위협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가 무심하게 지나친 사람 중에 캄보디아 ‘킬링필드’의 주범 폴 포트가 있다. 200만 명에 가까운 무고한 국민들을 학살한 크메르루즈의 지도자 폴 포트도 한때는 프랑스에서 유

학생을 하던 순수한 열혈 청년이었다. 만일 그때 누군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면 끔찍한 캄보디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기독교인들이 우리 안에서 받은 복음의 감동을 우리 밖의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소명을 받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CMCA에 바라는 열망을 모아

땅끝에서 다가온 이웃인 다민족 복음화의 첫발을 내디딘 CMCA를 바라보는 기대와 열망은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



▲ CMCA 창립 예배에 참석한 교회 및 선교 단체 대표들

온다.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리라는 믿음으로 소중함 격려와 책정질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한인디아스포라 교회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동역하기 위해 한인사무국을 개설하고 사역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위클리프 캐나다(Wycliffe Canada)의 이규준 선교사는 “그동안 우리 민족끼리만 어울리거나 저 멀리 해외 오지 선교만 생각하던 저희 한인디아스포라 교회에게 CMCA는 우리결로 이미 다가와 있는 세계의 소수민족들을 섬길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 준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CMCA의 사역을 통해 각 소수민족이 자기 언어와 문화에 맞게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부흥을 체험한 한인 교회의 역동성이 타민족들에게 영적인 격려가 될 때 그들이 힘을 얻고, 자기민족과 교회를 섬길 뿐 아니라 타민족들과 협력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는다”고 말했다.

SIM(Serving In Mission)Canada의 반 라르 어윈(van Laar, Erwin) 이사는 “우리 단체의 다민족 선교 담당 이사인 브라이언 사임(Brian Seim)이 13년 전에 정현범 목사를 만나 사역에 대해 조언과 자문을 한 적이 있다. SIM과 CMCA는 소외된 계층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한다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앞

으로 유기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며 CMCA 사역을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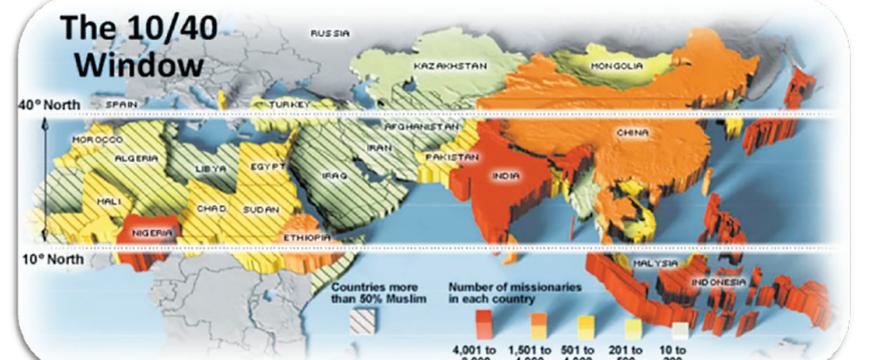
TIM(Tyndale Intercultural Ministry) 센터의 로버트 카즌(Robert Cousins) 대표는 “TIM과 CMCA의 공동된 비전은 열방 교회들이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이제 세계 선교는 우리의 이웃에서 시작해 땅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땅끝에서 다가온 이웃에 대한 선교를 강조했다. 특히 카즌 대표는 동남아시아5개국(베트남, 미얀마, 태국, 필리핀, 라오스) 소수민족 교회를 개척

하고 성장시키며 캄보디아 생명샘 고아원을 지은 토론토 영락교회의 사례를 들며 다민족 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남아시아 출신 소수민족 교회 목사들의 CMCA를 바라보는 감회는 남다르다. 캐나다 최초 태국교회의 Pastor Suchitra는 토론토 영락교회와의 인연을 회상하며 “기독교의 불모지와 같은 태국 이민자를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정 목사의 격려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해 캐나다 최초의 태국 교회로 성장했다”며 CMCA의 역할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얀마교회 솔로몬(Solomon)목사는 “예배 처소가 없어 각 가정을 돌며 가정예배를 보던 시절인 2004년 말에 영락교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동지를 틀 수 있었다. 이제 우리가 5개 지교회를 개척하는 수준으로 성장해 왔다”며 지난날을 회상했다.

영락교회에서 성장한 가장 큰 소수민족 교회인 베트남교회의 팀 뉴옌(Tim Nguyen)목사는 “다민족 교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같은 비전을 공유한다는 것이 감격스럽다. 민족을 초월해 모든 교회가 협력하는

이런 일들이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서서히 자리잡게 되면서 북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과 캐나다 교계와 지도자들에게도 알려져 이 사역을 더 알고 싶어하거나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례가 생겼다. 이러한 사역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정현범 목사는 2014년 초부터 한 교회에서만의 사역범위를 벗어나 범 교회적으로 CMCA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영락교회와 뜻이 있는 교회 그리고 단체들과 더불어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하였다.

땅끝에서 다가온 이웃을 향해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다민족간 협력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운타운에 개척된 필리핀 교회 톤도(Genaro Tondo)목사는 “CMCA는 제자훈련과 리더쉽 훈련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며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의 차이를 좁히는 다리 역할을 기대했다.

또한, 지난 5월에 토론토 영락교회에서 열린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에 참석한 이시영 장로(전 UN 대사)는 “전 세계 180여개국에 세워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세계 선교의 교두보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놀라움 가운데 특별히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다민족 선교는 새로운 선교 모델로 보인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뿐만 아니라 모든 디아스포라 교회와 사역을 공유하기를 바란다”고 말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그리고 송민호 담임목사가 이끄는 영락교회 다민족 선교의 산 증인인 장영민 장로(선교위

복음이 가장 많이 들어가야 할 10/40 창은 정치, 종교, 지리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선교사역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는 난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난민, 이민, 취업, 유학, 여행 등으로 우리 곁에 이웃으로 불러오셨다.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곁으로 많은 소수 민족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채 살아가고 있고, 많은 회교권 유학생들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복음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으며, 그리고 많은 소수민족 공동체들이 영적 지도자가 없고, 예배 처소가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려 하고 있다면 이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빠르게 반응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온 이웃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생활 속의 선교사로 활동하는 효과를 맞출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그로 기대하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말씀의 성취에 동참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신 이유는 이와같이 은혜로 받은 구원과 복을 이들에게 다시 흘려보내길 원하시는 것이라 믿는다.

CMCA는 캐나다 다민족 선교를 위해 동역하는 교회와 단체,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토론토 내 여러 소수민족 교회들이 함께 모여 복음을 전하며 주 안에서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문의: 416-497-2424(구내 155) cmca.allnations@gmail.com www.CMCAallnations.org (구축 중) 주소: 10 Huntingdale Blvd. Scarborough, ON Canada M1W 2S5

(CMCA 사역 소개가 다음에 계속됩니다.)